

건강 칼럼

미소의 해부학, 심미적 안모 완성하는 교정학적 구조와 공식

첫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단연 '미소'이다. 시각·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시선은 눈을 거쳐 자연스럽게 입 주변으로 향하며, 이때 형성되는 미소는 상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심미치의학 연구에서는 아름다운 미소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치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치열은 미소라는 심미적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인 것이다. 현대 치과교정학에서는 이러한 미소의 형태학적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해 심미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인의 안모에 가장 조화로운 미소를 찾아 치료를 계획한다. 이에, 심미적인 미소를 완성하는 교정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치아 요소의 정렬 : 형태학적 조화와 미소선의 원형
미소의 중심을 이루는 치아 요소는 단순히 치아가 가지러한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정중선과 상악 중정치 중심선의 일치, 치간 공극의 유무, 치아 배열의 연속성까지 모두 심미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총생, 회전 등이 존재하면 치아의 연속성이 깨지면서 구강 내 불규칙한 움직임이 형성된다. 이는 미소의 대칭감을 무너뜨리고



김 경 은
유성선병원 치과 전문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산처럼쪽으로 정밀하게 배열된 치열은 빈틈없는 연속성을 형성해 구강 전체를 건강하고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한다. 또한 웃을 때 상악 전치부의 전단선이 하순의 곡선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미소선(Smile Arc)'이 형성되어야 한다. 입꼬리 안쪽의 어두운 공간인 '협측 회랑(Buccal Corridor)' 역시 전체 미소 곡을 기준으로 양측을 합해 약 8~10% 정도를 유지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미소를 완성할 수 있다.

#돌출입 교정 : 측모와 연조직 긴장도의 개선
동양인에게 비교적 흔한 치성 및 골격성 돌출입은 웃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모의 심미성을 저하시킨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입을 내뿜기 위해 턱을 근육인 이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턱끝 피부가 울퉁불퉁해 지는 연조직 긴장 현상이 동반되

도 한다. 돌출입 교정의 핵심은 단순히 앞니를 뒤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코끝과 턱끝을 연결한 'E-line(Ricketts 심비선)'을 기준으로 입술의 위치와 돌출 정도를 조화롭게 개선해 자연스러운 측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정발치를 시행하면 돌출이 개선되고, 구강 주위 근육의 긴장도도 함께 완화된 다. 그 결과 측모는 더욱 균형 있게 변화하며 미소 또한 한층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갖게 된다.

#거미스마일(Gummy Smile) 교정 : 잇몸 노출량의 형태학적 재조정
웃을 때 상악 잇몸이 2~3mm 이상 과도하게 노출되는 거미스마일은 미소의 심미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전치부의 과도한 정출, 잇몸을 거상근의 과활성, 치아의 수동적 강출

부진, 상악골의 수직적 과성장 등 다양한 해부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전치부의 수직적 한입, 보톡스 치료, 차근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골격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에는 악교정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니스크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악 전치부 악근 전체를 상광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거미스마일의 개선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안면 구조의 0.5mm,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심미안이 결정한다
안면의 안면 구조는 불과 0.5mm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만큼 정교한 영역이다. 따라서 진정한 심미적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골격 형태뿐 아니라 연조직의 두께와 탄성, 나이에 따른 구강 주변 연조직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치과교정의 목표는 단순히 치아를 가지러하게 배열하는 데 있지 않다. 환자가 가진 골격과 안모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미소선을 설계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궁극적인 가치이다. 정밀한 진단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중앙일보의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주 채권 은행인 하나은행은 최근 중앙일보에 대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열고, 금융 채권자 공동 관리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서면 결의 결과, 채권의 기준 4분의 3 이상 동의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단은 이 기간 중앙일보의 재무 상태와 자금 계획 이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 개선 계획에는 중앙일보의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채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필요할 경우 신규 자금 지원 여부 등이 담길 예

정이다.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5개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곧 벤츠 발행 연속성과 공적 채무 수행 등을 이유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추진해 왔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에게 제출한 자금 계획에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15.63%를 들고 있다. 채권단은 앞으로 중앙일보의 계열사 간 보증 채무와 우발 채무 규모, 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추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어느 기초지자체 출입 기자 퇴출 규정

익산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출입 기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기자 사례에는 당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민선 9기 익산시장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 남성이 질문을 시도하며 소란이 시작했다. 익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이 남성은 한기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내세워, 당시 전남 지역 군수 출마 예정자 A씨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1심 판결문에는 해당 기자가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 A씨를 복당시키는 등,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소위 '선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적시됐다.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중앙당, 지구당, 도당을 정리할 테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익산시가 지난 4월,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출입 기자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형,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도 이 남성에게는 최소 5년 동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허점 때문에 해당 남성은 아직도 익산에서 기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진은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남성의 입장을 묻고자 했지만, 남성은 사적인 문제이고, 밝힐 입장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폭염 속 안전수칙, 생명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칫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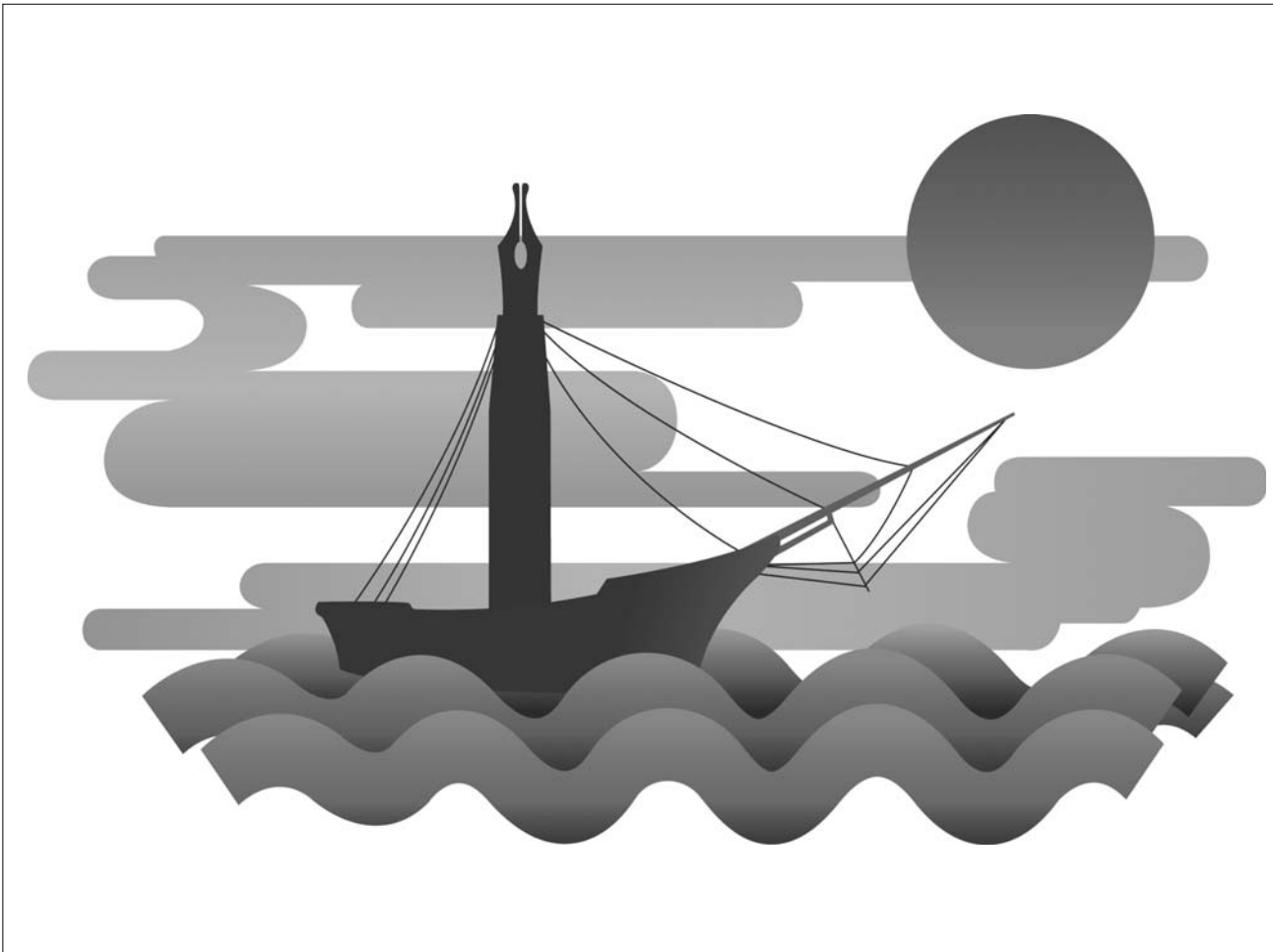
이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야외 근로자, 농업인 등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땀품이 잘되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이웃이 있다면 안부를 살피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무더위는 피할 수 없지만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생활화 하고 주변의 건강까지 함께 살피는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전한 여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유혜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 · 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